

朝鮮時代 建築 配置圖의 圖法과 思想에 관한 研究

김 왕 직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 흥 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머리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법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 한번의 재고찰 없이 당연한 듯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木造가 중심인 우리 나라 건물을 그리는데 현재의 도법은 비합리적이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조적조가 대부분인 서양의 건물과 목구조가 대부분인 동양 건물의 도법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서양의 도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구조는 일정한 法式과 規範이 있다는 것에서 서양의 조적조와 구조적인 큰 차이점이 있고, 공간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思想的인 측면에서도 동서양이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목구조가 중심인 동양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고대로부터 배치도를 그리는데 입면도를 넘어트려 그린 立面展開式圖法¹⁾이 공히 나타나고 있다. 서양의 배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건축도를 그리는데 시점도

매우 다르다. 이로 미루어 고대에는 건축도를 그리는 도법이나 사상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건축도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회화사 쪽에서 건축도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신 분으로는 안휘준 선생을 들 수 있다.²⁾ 또 직접적으로 건축사적인 입장에서 조선시대 건축준공보고서 격인 의례서들에 나타난 도면을 중심으로 도법을 연구한 호남대 박익수 교수의 박사논문이 있다.³⁾ 이외에 최근에는 건축문화에서 특집으로 『우리 나라 옛 건

2) 安輝濬 선생의 궁궐도를 중심으로 한 도법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는 선행 연구였다. 이 중에서 특히 궁궐건축 도법의 종합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이다. 이전에도 건축도법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연구업적이 아래와 같이 있다.

『國寶』繪畫, 藝耕産業社, 1986

『16世紀 朝鮮王朝 繪畫와 短線點皴』, 『진단학보』 46,47호 합집(1979,6) 227~230쪽

『규장각소장 회화의 내용과 성격』, 『한국문화』제10호 (1989.12), 348~350쪽

『한국의 고지도와 회화』, 『海東地圖』 3권, 서울대규장각, 1994

『藏書閣所藏繪畫資料』,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3) 박익수, 『朝鮮時代 營建儀軌의 建築圖 研究』, 전남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4

1) 圖法의 名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자들이 많지 않고 기존의 몇몇 명칭으로는 도법을 망라하는데 부족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으므로 本文에서 後述하기로 한다.

축그림』이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이 연재하여서 건축도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⁴⁾ 그러나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여서 발견된 도면도 한계가 있고, 서술도 도면의 나열과 해설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부분적이고 제한된 도면이지만 선행연구자들의 업적을 토대로 배치도를 중심으로 도법사상까지를 입체적으로 고찰하려고 노력하였다. 논문주제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 많은 건축도 중에서 회화적인 것을 제외하고 극히 공학적인 기록화와 건축관련 의뢰서들에 실린 건축도를 중심으로 했다. 시대적으로는 조선중기이후가 될 것이며, 많은 건축도가 있으나 우선은 가장 흔하게 보이고 서양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입면전개형 배치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건축도의 정의와 배치도의 종류

2-1 건축도의 정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물을 대상으로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왔다. 이러한 그림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순수 회화에서 건물을 주제로 그린 것으로 건물의 고증성이나 역사성은 조금 약하고 예술성 중심의 그림들이다. 두 번째는 지도나 설명도의 성격을 갖는 기록화로 건물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을 들 수 있겠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예술성과 공학성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삼국

시대에 많이 그려진 벽화는 회화적인 것과 기록화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세 번째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린 공학적·기술적 도면인 건축설계도나 건물을 짓기 전 혹은 짓고 난 후 보고용으로 그린 건축도가 있겠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도면의 정의에 가까운 옛 건축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건물을 그린 모든 그림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회화적 표현과 건축적 표현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로 그 양이 많아 건축도의 성격구명과 논리전개에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설계도와 구분하여 건축도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첫째는 건물을 짓기 위해 작성되는 모든 설계도, 두 번째 건물을 다 짓고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모든 도면, 세 번째는 두드러지게 건물을 표현한 기록화로서의 건축도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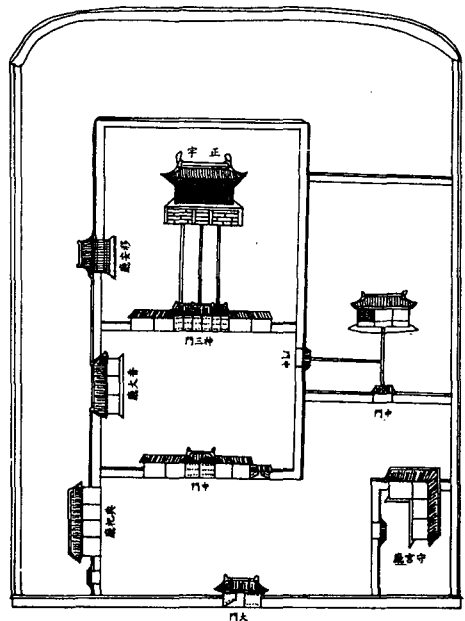


그림1. 垂恩廟圖(1764, 『垂恩廟營建聽儀軌』)

4) 송인호외, 『우리나라의 옛 건축그림』, 『건축문화』 196호, 97.9 속에 여러 편의 소 주제로 글을 실었다. 이외에 잡지에 실린 글로는 拙稿인 「옛날의 설계도와 지금의 설계도」, 『건축세계』, 1998.4 가 있으며 건축문화에 실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봉건, 고구려 고분벽화
- 천득염, 소재원도
- 김재식, 조계산 선암사 대각국사 중창건도기
- 이호열, 今是堂十二景圖와 밀양 영남루
- 양상현, 진경산수에서 보이는 사찰건축
- 김광현, 求禮五美洞家圖
- 이강근, 동궐도
- 박익수, 의례 가례 도감류

2-2 조선시대 건축 배치도의 종류

(1) 입면전개형 배치도

입면전개형이란 입면도를 사용하여 그린 배치도를 말하며 조선시대 배치도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그 실례는 아래의 <그림1>과 같으며 대부분 건축관련 의례서에서 입면전개식 배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 기록화에서도 이러한 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례서의 건축도와 다른점은 대부분 채색화이며, 묘사가 섬세하고 각각의 건물 입면을 부감법으로 그린 경우가 많다.

표1. 입면전개형 배치도 일람표

시대별	배치도명	출 전
15~16세기	宗廟全圖(1474)	『國朝五禮儀』
	文昭殿圖(1474)	『國朝五禮儀』
	文宣王廟圖(1474)	『國朝五禮儀』
	重廟朝書筵官賜宴圖(1533)	홍의대박물관소장 『國寶』재인용
17세기	麟坪大君坊全圖(1623~1649)	서울대규장각소장 『東闕圖』재인용
	越中圖(1698이후)	장서각소장 『藏書閣所藏繪畫資料』
18세기	宗廟全圖(1706)	『宗廟儀軌』
	懿昭廟圖(1752)	『懿昭廟營建廳儀軌』
	垂恩廟圖(1764)	『垂恩廟營建廳儀軌』
	景慕宮改建圖(1776)	『景慕宮改建都監儀軌』
	景慕宮全圖(1783)	『景慕宮儀軌』
	文禧廟圖(1796)	『文禧廟營建廳騰錄』
	享祀班次圖(1778, 1785)	『宮園儀』
19세기	社稷署全圖(1804)	『社稷署儀軌』
	玉壺亭圖(1815추정)	『東闕圖』재인용
	王世子出宮圖(1817)	고려대도서관 소장 『옛궁궐그림』재인용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圖(1824)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趙大妃四旬稱慶陣賀圖(1847)	동아대박물관소장 『國寶』재인용
	永禧殿圖(1900)	『永禧殿營建都監儀軌』
	濬源殿圖(1901)	『眞殿重建都監儀軌』

의례서의 건축도들은 대부분 단선을 이용하여 건물의 위치와 칸 수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관련 의례서 중에서도 배치도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사당(사묘건축)관련 의례서들이다. 이는 관영건축공사가 대부분 궁궐과 사당인데 궁궐은 이미 국초에 배치가 완성되고,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중수나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배치도를 그릴 이유가 없어서 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왕족들의 사당은 수시로 지어졌으며, 대부분 의례서들이 조선초기의 것은 없고 임진왜란 이후의 것만 남아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법은 궁궐이나 사당건축이 서로 큰 차이점이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도법은 시대와 당시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관련 의례서들은 장서각(현 정신문화연구원 내)이나 서울대 규장각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체해 복사가 가능하다.

(2) 투상도형 배치도

平行斜線構圖로 그린 투상도형 배치도는 주로 記錄畫에 나타난다. 건축관련 의례서에서는 매우 드문 배치도법으로 『園幸乙卯整理儀軌』의 화성행궁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의례서에서 평행사선구조의 투시도법 도면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8세기말의 『華城城役儀軌』⁵⁾에서 이다. 화성성역의례는 건축의례 중에서도 매우 방대한 기록으로 도설편에서는 화성전도를 투상도법으로 그렸으며, 각각의 건물도도 정면부감⁶⁾이 아니라 투상도법으로 그렸음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록화에 많이 나타나는 투상도형 배치도는 채색화가 대부분이며, 45° 평행사선구조가 대부분이다. 단지 투시 방향은 때에 따라서 서로 반대인 경우가 많다. 기록화적인 성격을 갖는 이러한 배치도는 건물 뿐만아니라 수목과 산천

5) 『華城城役儀軌』는 정조18년(1794)에서 정조20년(1796) 8월까지 약 3년동안 진행된 화성축조의 시말과 계도·의식 등을 매우 자세히 기록한 방대한 의례서이다. 『화성성역의례』는 1965년 수원시 문화재보존회에서 영인본을 출간하였고, 1978년에는 수원시에서 번역본을 내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김왕직,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영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7.11, 7쪽)

표2. 투상도형 배치도 일람표

시대별	배치도명	출 전
16세기	明宗廟宮中崇佛圖	호암미술관 소장 『옛궁궐그림』재인용
	戶曹郎官契會圖(155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國寶』재인용
17세기	北塞宣恩圖(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國寶』재인용
18세기	釜山鎮殉節圖(1760)	육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國寶』재인용
	東萊府殉節圖(1760)	육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國寶』재인용
	華城行宮全圖(1796)	『園幸乙卯整理儀軌』
	江華府宮殿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東闕圖』재인용
19세기	東闕圖(1830이전)	고려대박물관 소장 『東闕圖』재인용
	西闕圖案(초기)	고려대박물관 소장 『東闕圖』재인용
	憲宗嘉禮圖(1844)	동아대박물관 소장 『國寶』재인용
	水原宮闕圖	고려대박물관 소장 『東闕圖』재인용
	京畿監營圖	호암미술관 소장 『옛궁궐그림』재인용

을 동시에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회화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수목의 화법으로 그 계통을 파악할 수도 있다. 또 『동궐도』와 같은 그림에서는 건물의 지붕에 각각 이름을 기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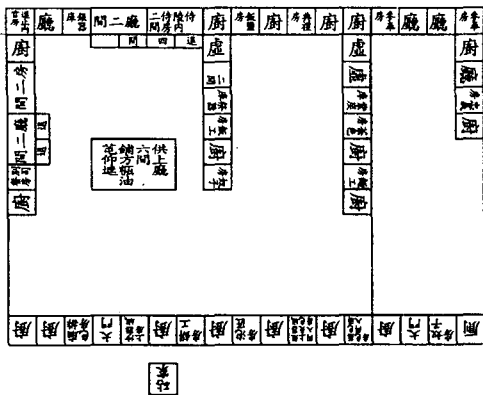


그림2. 仁陵假齋室圖(1834, 『仁陵山陵都監儀軌』)

놓은 것을 볼 때 지도적 성격이 강한 기록화임을 알 수 있다.⁷⁾

평면사선구도는 고려시대 불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도법이 개발되어 입면전개식도법과 함께 또 하나의 계통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평면전개형 배치도

요즘 건축 배치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면전개형 배치도는 조선시대 건축도면에서는 입면전개식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적다.

표3. 평면전개형 배치도 일람표

시대별	배치도명	출 전
17세기	宗廟 祭廳圖(1637)	『宗廟修理都監儀軌』
18세기	祭廳圖(1718)	『祭廳及石物造成時曆錄』
	顯隆園圖(1794)	『顯隆園曆錄』
	健陵齋室圖(1800)	
	健陵內人假家圖(1800)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19~20세기초	健陵假齋室圖(1800)	
	仁陵齋室圖(1834)	
	仁陵內人假家圖(1834)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仁陵假齋室架圖(1834)	
	景陵內人假家圖(1849)	
	景陵假齋室圖(1849)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睿陵內人假家圖(1878)	『哲仁王后睿陵山陵都監儀軌』
	裕康園齋室圖(1904)	
	裕康園內齋室圖(1904)	
	裕康園假齋室圖(1904)	『純明皇后裕康園園所都監儀軌』
裕康園內人假家圖(1904)		
北闕圖形(후반)		
東闕圖形(고종년간)	장서각소장	

평면도형으로 영건의례 중에서 시대가 빠른 것으로 『宗廟修理都監儀軌』(1637)의 祭廳圖가 있다.⁸⁾ 도법이나 내용은 1718년에 발간된 『祭

6) '正面俯瞰' 이란 정면도를 그리는데 上下移動視點으로 그리기 때문에 立面圖이면서도 대청마루가 투시도처럼 보이고, 처마의 공포가 보이는 특이한 한국건축의 立面圖法을 말하는데 '정면부감'이란 명칭은 안휘준 선생의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에서 보인다.

7) 안휘준,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18~23쪽

8) 박익수, 『의례 가례 도감류』, 『건축문화』 제196호, 97.9

廳及石物造成時騰錄』의 제청도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같다. 이 평면배치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담장과 험문들은 입면전개식으로 그리고 건물만 평면전개식으로 그린 것이 특이하다.

이외의 평면전개형 배치도는 주로 山陵都監 儀軌類에서 齋室을 그리는 데 이용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3. 기존 도법명칭의 문제점과 제안

3-1 기존 건축도법의 명칭과 문제

(1) 도면종류와 도법명칭의 관계

건축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도면의 종류와 도법 명칭을 혼용해 사용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圖面名과 圖法名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도면종류에 따라서 透視圖, 鳥瞰圖, 配置圖, 平面圖, 立面圖, 斷面圖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여 '圖面' 또는 '設計圖'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설계도를 '間架圖'로 불렀는지 단순히 '圖形'으로 불렀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건축관련 의례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면의 종류에 따른 세부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례에서 도면을 싣고 있는 부분은 '圖形'편이나 '圖說'편이다. 단순히 도형이라고 했을 때는 그림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설이라고 했을 때는 그림에 대한 보조설명을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도면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종류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고유명칭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

건물 전체의 규모나 배치를 보여주는 도면은 주로 '○○全圖'라고 많이 표현하였다. 그리고 개별 도면들은 입면도이건, 단면도이건, 투상도이건, 기기도이건, 상세도이건 간에 고유명칭을 붙여 '○○圖'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祭廳圖, 文昭殿圖, 仁政全圖, 西將臺圖, 舉重機圖, 石欄下圖 등등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종류의 분류속에는

다분히 일정한 도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평면도는 수평단면을 투영한 도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단면도는 수직단면을 투영한 도법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도면종류에는 일정한 도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옛 건축도에는 한 종류의 도면속에 여러개의 도법이 동시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도법을 전제로한 도면명을 붙이기 어렵다. 그래서 도면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놓기로 하고 단지 옛 건축도에 실린 도법에 관한 문제만을 우선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기존 도법 명칭의 문제점

안휘준 선생은 궁궐그림을 도법에 따라서 크게 둘로 분류하였다. '正面俯瞰構圖'와 '平行斜線構圖' 또는 '平行透視圖法'이다. 정면부감구도는 정면관을 위주로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표현된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주된 건물이 사방을 둘러싼 담장에 의해 4각형 틀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수의 건물들을 표현하는데 주로 채택되었고 대개 행사장면을 동반하는 기록화들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도법은 고구려의 성곽들에서 보듯이 이미 삼국시대에 자리잡히기 시작하여 변화를 동반하면서 조선말까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⁹⁾ 고 하였다.

대부분 건축의례서에서 나타나는 배치도가 이러한 도법으로 그린 도면들이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입면전개식도법을 구사하하면서도 기록화에서는 모두 남에서 북쪽방향, 한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례서 건축도에서는 북쪽 뿐만아니라 동서방향으로도 넘어트려 그렸다는 것이다. 개개 건물에서도 의례의 건축도는 순수하게 입면도를 선묘로 표현하여 배치한 반면에 기록화에서는 대청마루가 가끔 투시도 형태로 표현된 경우가 있다. 즉, 부감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화에서도 '麟坪大君坊全圖'와 같이 동서방향으로도 넘어트린 실례가 있다. 그래서 안

9) 安輝濬,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32쪽

휘준 선생은 정면부감구도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開花式描法’, 또는 ‘四方顛倒式描法’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생각된다고 하였다.¹⁰⁾ 즉, 꽃이 핀 것처럼 사방향으로 벌어져 있는 모습을 연상한 것이다. 또 건물이 각 방향으로 넘어져 있으므로 사방전도식묘법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배치도가 정면부감구도임에는 틀림없으나 건축도에서는 부감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입면도를 넘어뜨려 사용한 경우가 많다. 의례에 나타난 도면중에서 단위건물을 그린 입면도는 대부분 정면부감구도로 그렸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자면 부감구도만은 아니다. ‘俯瞰’이란 말은 고개숙여 내려다 본 시각으로 그린 도법을 뜻한다. 요즘표현으로는 조감도를 이른다. 의례서의 건축 입면도는 평면상에서 대청마루와 같이 전퇴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투시도 형태로 표현했지만 동시에 지붕 밑의 공포모습이 앙시도 형태로 보이므로 일률적으로 부감구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단위건물에서 부감구도를 사용했다면 이것을 전체배치도의 도법명칭으로 공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시점과 구도법을 분리하여 도법을 설명해야 한다. 또 ‘四方顛倒式描法’은 엄밀하게 네 방향으로 넘어진 도법이란 의미인데 의례의 배치도를 보면 초기의 것은 한 방향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3방향으로 넘어뜨려 그린 것이 많다. 극히 부분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한국에서는 4방향전도식은 극히 드물다. 3방향전도식이 가장 많다. 또 서양의 배치도법과 가장 다른면이 평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입면도를 사용했다는데 초점이 있으므로 도면종류를 도법명칭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평행사선구도’나 ‘평행투시도법’은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보여진다. 평행사선구도는 의례의 배치도에서는 잘 나타나고 주로 기록화에서 많이 보인다.

“俯瞰法”을 다르게 이해한 경우도 있다. 소쇄원의 시점특성을 설명하면서 ‘소쇄원 48명의 시를 한수한수 읊을 때마다 옮겨지는 시상을 보다 적절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상에 따라 지상의 여러 장소를 옮겨가면서 바라보는 시선인 이동시점의 표현이 요구된다. 이 기법은 중첩원근보다는 상하원근에 치중하여 고정시점이 아닌 지상에서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건물이나 수목 등이 겹쳐 나타나는 부감법으로 한방향에서 전체를 한 눈에 바라보는 시점보다는 지상에서 진입하면서 정원을 순환적으로 감상하며...’¹¹⁾라고 했다. 여기서는 도법이라기 보다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또 ‘華城全圖’와 같이 배치상황과 주위의 성곽과 수목 등의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의 형태는 외곽선으로 윤곽만 보여주는 정도이고 산수의 배경이 강하게 대입됨에 따라 일반 회화의 성격이 강하게 그려진 도법을 ‘全景式 配置圖’라고 하였다. 한편 표현기법은 기존의 배치기법과는 달리 俯瞰眺望과 우측으로 기울어진 平行斜線遠近 묘사로 처리함으로써 건물이 원근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로 묘사되고 이동하는 시각을 모아서 보는 사실성이 강한 형태를 나타낸다.¹²⁾

‘전경식 배치도’라는 것은 도법을 설명한 용어는 아닌 듯하며, ‘부감조망’이나 ‘평행사선원근’도 정확히 도법으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안휘준 선생의 도법설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도법도 내용에 따라서 구도법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분리해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2 새로운 도법명칭의 가정

(1) 設計圖의 種類에 따른 분류

배치도의 도법을 분류하는데 먼저 어떠한 도면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

10) 위책, 37쪽

11) 천득염, 소쇄원도, 『건축문화』 제196호, 97.9

12) 박익수, 『의례 가례 도감류』, 『건축문화』 196호, 97.9

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평면도를 이용해 배치도를 그리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에 목구조가 중심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입면도를 배치도그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다른점이기 때문에 목구조의 도법특성을 설명하는데 도면종류에 따른 분류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치도를 '平面展開式圖法(속칭 配置平面圖)'라고 한다면 동양전통의 입면도를 넘어트려 그린 배치도를 '立面展開式圖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입면전개식도법은 다시 전개의 방향에 따라 하나의 배치도안에 입면도를 몇방향으로 넘어트렸느냐에 따라 1방향 전개식도법, 2방향 전개식도법, 3방향 전개식도법, 4방향 전개식도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2) 構圖法에 따른 분류

構圖法에 따라 분류하면 垂直·水平을 기준으로 하는 도법과 斜線을 이용한 도법이 있다. 수직·수평 구도법을 기준으로 그린 배치도를 '立面俯瞰圖法'으로 정의하고, 사선구도를 이용한 도법으로 그린 배치도를 '平行斜線圖法'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수직과 수평선을 이용한 도법은 건축배치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법이다. 입면전개식도법이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

평행사선구도를 이용한 도법은 서양의 '아이소메트릭'에 속한다. 사투상도인데 사선의 방향이 30°, 45°, 60° 등이 있으나 조선시대 배치도에서는 거의가 45° 투상도에 해당한다. 평행사선도법은 건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정면과 측면의 모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부감법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행사선도법은 『東闕圖』가 대표적이다.

(3) 視點에 따른 분류

건물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固定視點圖法'과 '移動視點圖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건물은 눈높이에 따라서 표현하는 내용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일소점이든 이소점이든 일정한 시점에 따라 규범적으로 그린 도법을 '고정시점도'로 정의한다. 이와는 달리 하나의 도면에서 보고자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모여주는 多視點方式을 고정시점에 반해 '이동시점도법'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조선시대 입면도에서는 부감과 양시를 동시에 사용한 上下移動視點法이 있고 입면전개도식도법에서는 각각의 마당으로 이동해 가면서 건물을 바라다 본 시점으로 배치도를 그렸다. 이러한 경우를 平面移動視點法으로 나누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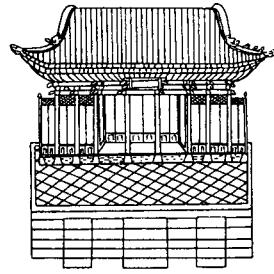


그림3. 창경궁 통명전도 (1834, 『창경궁영건도감의궤』) 仰視와 俯瞰이 동시에 사용된 입면도

4. 도법의 특성과 시대적 변천

4-1 입면전개형 배치도

입면전개형 배치도는 입면도를 배치도에 이용한 '立面展開式圖法'으로 그린 도면이면서 구도법상으로는 수직·수평구도를 이용한 '立面俯瞰圖法'으로 그린 건축도와 기록화를 말한다.

(1) 15~16세기

1474년에 발간된 『國朝五禮儀』에 실린 종묘와 영녕전도에서 조선초기 15세기의 건축배치도법을 볼 수 있다.¹³⁾ 의례를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어서 건축물은 개략적으로 그렸지만 도법만큼은 후대에 그려진 종묘전도(17세기)와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모든 건물을 북쪽으로 넘어트려 그린 입면전개식도법이다. 종묘이외에도 묘사와 관련하여 社稷과 文昭殿, 文宣王廟, 山陵 등과 관련된 많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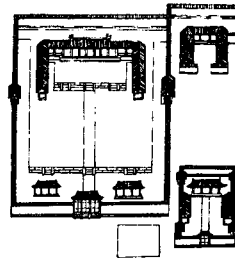


그림4. 宗廟全圖(1474)

13) 『國朝五禮儀』 장서각소장, 1474년

들이 삼입되어 있다. 이 도면들도 모두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린 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16세기에 발간된 건축의계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도를 볼 수 있는 것은 기록화에서일 뿐이다. 그중 가장 앞선 것이 ‘重廟朝書筵官賜宴圖’(1533)이다. 이 그림에서 행사 장면이 보다 중요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산수는 배경을 이루는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는 점은 산수가 위주로 표현되고 행사장면은 상징적으로만 다루어지던 조선초기 安堅派 系統의 契會圖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달라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회랑은 수직수평 구도법을 사용하여 그렸지만 근정전은 기단에서 건물까지 전체적으로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한 투상도로 그렸다는 것이다. 두 도법이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경우이다.

15~16세기는 입면전개식도법에서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린 1방향전개식도법이 보편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7세기

17세기 초의 입면전개형 배치도로 앞선 것이 ‘麟坪大君坊全圖’¹⁵⁾이다. 이 그림은 인조조(1623~1649)나 또는 그보다 월선 후대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¹⁶⁾

채색화에서 보기 드물게 입면전개식도법으로 도면에 가까운 그림이다. 다른 기록화들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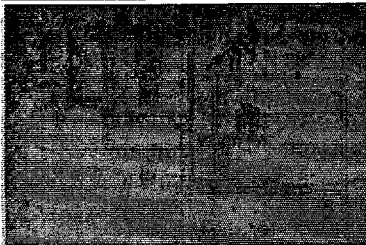


그림5. 麟坪大君坊全圖(부분, 『東闕圖』재인용)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두 장의 종이를 상하로 잇대어 붙인 후에 건물과 회랑을 그렸는데 상반부에서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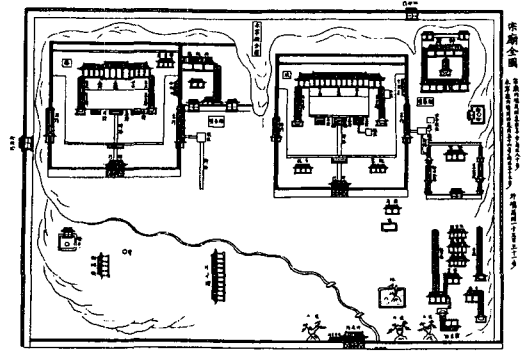


그림6. 宗廟全圖(1706, 『宗廟儀軌』)

원이 상부에 하반부에서는 정원이 밑에 거꾸로 뒤집혀 그려져 있다. 상반부와 하반부 모두 뒷산을 위쪽으로 보고 건물의 도법을 살펴보면 하반부는 모두가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지게 그린 1방향전개식도법이다. 그러나 상반부의 것은 부분적으로 좌우(동서)로 넘어진 건물들도 있어서 3방향전개식도법임을 알 수 있다. 3방향전개식도법이 18세기 중반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매우 이른 실례로써 주목된다.

18세기초에 작성되었지만 17세기의 도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추측되는 것이 1706년에 작성된 『宗廟儀軌』에 나타난 ‘宗廟全圖’이다. 여기에는 永寧殿도 포함되어 있다.¹⁷⁾ 종묘전도와 각종 관련 그림은 第1冊의 圖說編이 실려 있다. 正殿과 典祀廳, 御齋室 등이 있고 『國朝五禮儀』에는 없는 執事廳이 표현되어 있다. 필체는 線描로 도법은 국조오례의와 같다. 『국조오례의』 등의 서적에 의존했으나 당시 증축된 종묘의 모습을 추가로 그려 넣었다. 그러므로 내용은 바뀌었으나 도법은 그 이전 16~17세기의 형식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묘전도는 기본적으로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린 1방향전개식도법을 사용했다.

‘越中圖’는 영월에 있는 단종의 장릉을 그린 8폭의 그림이다. 월중도는 실제의 명승지를 설명명적으로 충실히 묘사하면서도 회화적인 요소의 비중이 크다. 지도와 회화의 두 요소가 잘 조화되는 격을 갖춤으로써 회화식지도의 대표

14)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東闕圖』, 1991, 31쪽
 15)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東闕圖』, 1991, 33쪽 재인용
 16) 安輝禧,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35쪽

17) 『宗廟儀軌』, 禮曹編, 藏書閣所藏, 肅宗32年(1706)

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¹⁸⁾

월중도에서 건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제3쪽, 제4쪽, 제5쪽, 제7쪽 등이다. 제5쪽 장절서원도가 3방향전개식도법인 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그림이 1방향전개식도법으로 그린 배치도이다.

17세기까지도 1방향전개식의 입면전개식도법으로 배치도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부분적으로 3방향전개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공간이나 의례공간은 반드시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리는 1방향전개식이 이용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3)18세기

『懿昭廟圖』는 의례의 맨 뒤쪽에 참고 삼아 신고 있다. 건축도입에는 분명하나 대부분의 의례에서는 앞쪽에 『圖說』편을 따로 두어 도면을 신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전인 正宇와 移安廳, 神三門이 담장으로 둘러쳐져 일곽을 이루고 그 앞으로 길을 따라 제1문, 제2문, 제3문이 놓였고 2문과 3문사이 도로 서쪽으로는 中排設廳이 놓였다. 다른 배치도들은 주칸 정도만 나타내는데 의소묘에서는 세살의 창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색이다. 전체적으로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린 1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나 이안청만은 동쪽으로 넘어지게 그렸다.¹⁹⁾

1764년에 그려진 '垂恩廟' <그림1> 배치도도 역시 의소묘와 같이 의례의 맨 뒤쪽에 실려있다. 전체 건물이 담장안에 정면히 배치되어 있으며 정전과 재실이 따로 일곽을 구성하였다. 기둥을 단선으로 표현한 것과 정전 기단은 부감법(소점이 있는)을 사용하여 그린 것이 특징이다. 배치상의 특징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중앙의 건물들은 북쪽으로 넘어져 있고 양쪽의 건물들은 동서로 넘어져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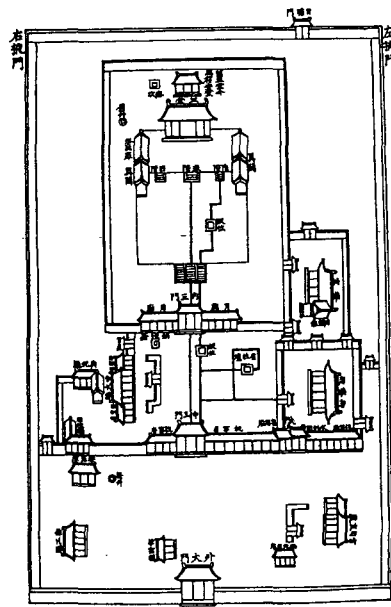


그림7. 景慕宮圖(1783, 『景慕宮儀軌』)

라고 할 수 있다.²⁰⁾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배치도로는 '景慕宮改建圖'와 '文禧廟圖'가 있다. 문희묘는 정전일곽은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트린 배치방식으로 그렸으며, 나머지 재실들은 동서 양쪽방

향으로 넘어트려 그렸다.²¹⁾

경모궁도는 규모나 배치, 도법면에서 이전의 '경모궁개건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 두 책이 발간된지 불과 10년의 차이도 보이지 않으므로 『景慕宮儀軌』²²⁾를 발간하면서 『경모궁개건도감의례』를 참조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차이점이라면 '경모궁개건도'에서는 건물의 기와골을 그려 넣었는데 '경모궁전도'에서는 기와골 없이 지붕의 외곽만을 그린 것이 다를 뿐이다. 역시 중축선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서로 넘어지게 그리는 3방향전개식 배치도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희묘는 경모궁과 같이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으로 그린 배치도로서 경모궁과 다른 점은 건물뿐만 아니라 조경수 까지 같이 그렸다는

20) 『垂恩廟營建聽儀軌』 규장각소장, 1764

21) 『景慕宮改建都監儀軌』 규장각소장, 1776

22) 『景慕宮儀軌』는 규장각본으로 정조7년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의 『종묘의례』와 마찬가지로 공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며, 이전에 발간된 책들을 참조하여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바친 후 그 때까지의 사실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1996.5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영인본 『景慕宮儀軌』 上, 下를 발간하였다.

18) 安輝濬外 編著, 『藏書閣所藏繪畫資料』,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28~29쪽

19) 『懿昭廟營建聽儀軌』 규장각소장, 1752

것이다.²³⁾ 이 도면의 도법상의 특징은 중축선을 기준으로 3방향으로 넘어트린 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外大門 같은 경우에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으로 넘어지게 그린 것이 특색이다. 극히 부분적이지만 중축선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7세기의 입면전개식도법의 특징은 초기에는 그 이전의 도법을 계승하여 북쪽 한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린 1방향 전개식이 압도적이었으나 1764년 '수은묘도'를 시작으로 후반기에는 본격적으로 3방향전개식도 도입되었다. 이것은 진경문화와 같이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영·정조 시기는 주자의 성리학에서 탈피하여 우리 고유의 조선성리학을 발전시키는 시기이다. 조선성리학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미술과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고유색채를 띤 문화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미술사에서는 이를 '진경시대'²⁴⁾라고 하는데 건축도법에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 사용되던 시기가 바로 진경시대의 최극성기이다. 이것을 보면 건축도법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19세기

19세기 대표적인 건축배치도로 '社稷畧全圖'와 '顯思宮別廟圖'가 있다. 모두 19세기 초에 그려진 작품이다. 사직서전도가 실려 있는 『사직서의례』는 1804년(순조4)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나 원본은 『景慕宮儀軌』와 마찬가지로 1783년에 발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⁵⁾ 그러

므로 '사직서전도' 역시 도법면에서 18세기말의 경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직서전도의 도법상의 특징은 18세기와 같이 3방향전개식 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중축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건물 그룹별로 3방향전개식 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이다.

'현사궁별묘도'는 純祖24年(1824)에 발간된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에 실려 있다. 일괄은 모두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다른점이 있다면 담장은 입면전개식으로 그리지 않고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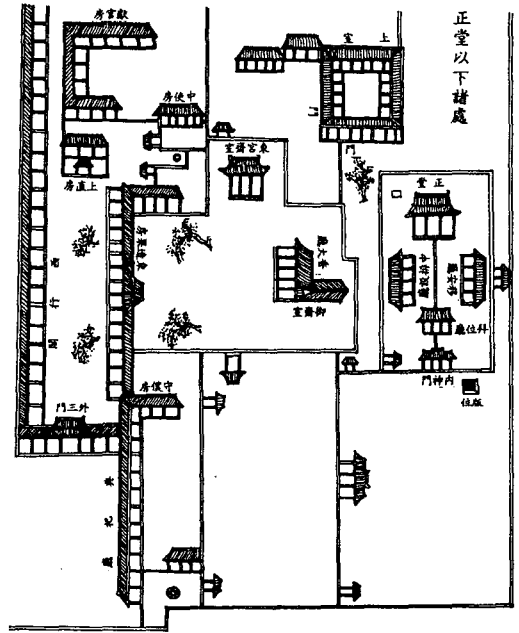


그림8. 顯思宮圖(1824,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선으로만 표시한 것이 다른 배치도와 다른 특징이다. '현사궁도'도 사직서와 마찬가지로 중심축이 설정되지 않고 공간별로 3방향전개식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옥호정도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3방향전개식 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투상도 형으로 그린 건물도도 있어서 중요조서연관사연도와 같이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다. 건축의례서의 그림과는 도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817년에 그려진 입면전개식도법의 기록화로

23) 『文禧廟營建聽騰錄』 규장각소장, 1789

24) 최완수의 지음, 진경시대, 돌베개, 1998.4

25) 『社稷畧儀軌』는 장서각본과 규장각본 둘이 있다. 장서각본은 『장서각도서목록집』에서 1820년(순조20)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 표기되어 있고, 규장각본은 그 영인본의 해제에서 1804년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서술체제를 볼 때 1804년 2월까지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83년에 편찬한 원본은 아니다. 그러나 1783년까지의 기록은 서체가 일정하고 참고문헌을 단대 반해 이후 1804년까지의 기록은 이전과 서체가 다르고 참고문헌 표기가 없다는 것이다. 즉 1783년의 원본에다가 그 이후부터 1804년 2월까지의 기록을 보완하여 1804년 직후에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규장각, 社稷畧儀軌(影印本), 199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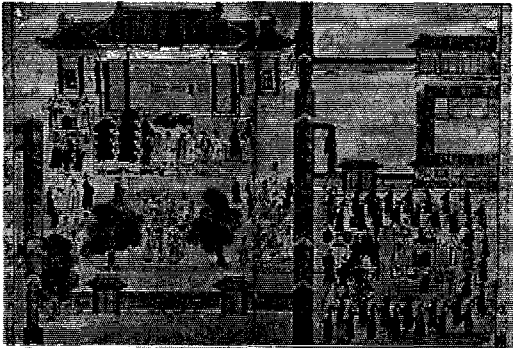


그림9. 王世子出宮圖(1817, 『옛궁궐그림』재인용)
 서 '왕세자출궁도'는 17세기 이전의 1방향전개식도법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건축도와는 달리 기록화로서 고식적인 도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례로 볼 수 있다. 아니면 기록화의 특성상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1방향도법이 공히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1847년에 그려진 '조대비사순친경진하도'에서도 같음을 볼 수 있다.

조선말기 입면전개식도법의 배치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영희전도(1900)'와 '준원전도(1901)'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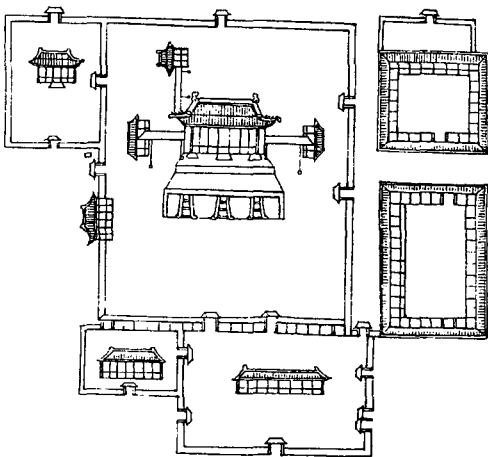


그림10. 澗源殿圖(1901, 『眞殿重建都監儀軌』)
 영희전은 이안칭, 정전, 신문, 신삼문, 외삼문이 일직선축선상에 배치되었고, 전사청과 재실이 좌우에 놓였다. 기본적으로 정전을 중심으로 중심축선상에 3방향전개식도법으로 배치되

었지만 전사청을 보면 역시 조선말기 중축선 없이 공간별로 3방향전개식도법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원전도'에서는 보다 더 확실하게 축선의 설정없이 공간별로 3방향전개식도법이 이용되고 있다.

19세기는 18세기와 같이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다른점은 18세기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중축선의 설정이다. 18세기에는 중축선을 기준으로 건물을 북쪽과 동서로 넘어트리는 3방향전개식도법이 이용되었으나 19세기에는 중축선이 사라지고 단위 공간별로 3방향 전개식도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도법사상면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이다. 중심축 사상에서 만인평등의 다핵공간 개념으로의 전이를 뜻한다. 조선후기 실학과 양학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화는 도법의 변화없이 수직수평구도의 입면전개식도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록화의 특성이라고 해석된다.

4-2 투상도형 배치도

(1)16세기

평행사선구도로 그려진 것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 '明宗朝宮中崇佛圖'이다. 평행사선구도의 채택이 뚜렷하여 이 계보에 속하는 후대 궁궐도들의 선행 사례로서 크게 주목된다. 원근법, 명암법, 투시도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화법이 전래되어 분명하게 수용되었던 18세기보다 2세기 앞선 시기에 이미 평행사선구도가 적극적으로 구현된 예가 이작품에서 확인되는 것은 분명히 괄목할 만한 일이다. '동궐도'도 이러한 전통을 계맥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 그림에서 동궐도와 현저히 다른 점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주요 정전은 평행사선구도가 아닌 상하이동시점의 입면부감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동궐도는 모든 건물이 평행사선구도에 의해 정확히 그려졌다. 이러한 차이점은 '명종조궁중승불도'는 행사위주의 기록화인 반면에 '동궐도'는 건축물을

26) 安輝濬,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48~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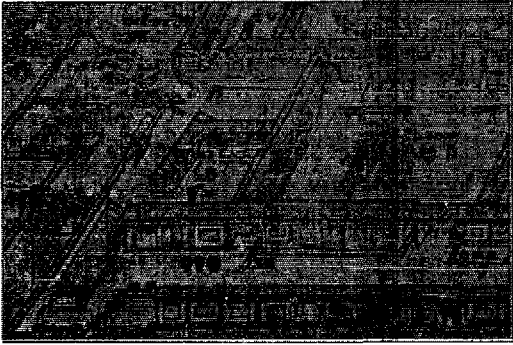


그림 11. 明宗朝宮中崇佛圖(부분, 『옛 궁궐 그림』재인용)
이해하기 위한 기록화의 성격이 더욱 강한 건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6세기는 자생적인 평행사선구도법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지만 강조하고 싶은 중심건물은 입면부감구도를 사용함으로써 혼합된 구도법이 한 화면에 나타나는 시기이다.

(2)17세기

17세기에 그려진 투상도형의 배치도는 '北塞宣恩圖'가 있다. 咸境道 吉州牧에서 개최된 文武兩科의 都會試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²⁷⁾

건물을 그린 투상도의 각도가 무과시 장면은



그림 12. 北塞宣恩圖 文科試(부분, 『국보』재인용)
어색하지 않으나 문과시의 경우에는 전체 배치의 투상도 방향과 건물 각각의 투상도 방향이 서로 반대여서 어색하게 표현되었다. 투상도의 도법상으로는 16세기의 '明宗朝宮中崇佛圖'의 정확한 도법에 비한다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사가 이루어지는 중심건물과 부속건물, 모든 건물을 같은 평행사선구도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려 한 것은 16세기 한 화면에 두 가지의 구도법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19세기 동궐도와 같이 한 화면에 하나의 도법을 사용하는 중간적인 단계의 도법임을 알 수 있다.

(3)18세기

'釜山鎮殉節圖'와 '東萊府殉節圖'는 1760년에重模된 것이며 初筆은 1709년이므로 18세기 초의 도법에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²⁸⁾

전체적으로는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건물에서 입면부감구도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완전하게 평행사선구도로 그려진 투상도형 배치도가 나타나는 것이 18세기 후반의 '華城行宮圖'와 '江華府宮殿圖'에서 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19세기의 '동궐도'로 이어진다.

18세기 말 평행사선구도법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19세기의 '동궐도'와 맥락이 잘 이어지는 계보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화성행궁도'가 있다. 新豐門, 左翊門, 中陽門, 奉壽堂 등의 건축물과 행각이 평행 대각선을 이루며 서 있는 모습이 평행사선의 부감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樹枝法에는 김홍도계의 화풍이 엿보인다.²⁹⁾

화성행궁 뿐만아니라 1796년에 완성된 화성의 영건기록인 『華城城役儀軌』에 실린 건축도들은 배치도건 개별 건물이건 간에 평행사선구도법으로 그린 투상도들이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이로미루어 18세기 후반을 전후한 이 시기에 평행사선구도법이 대단히 발전하여 정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화부궁전도'는 화성행궁도와 평행포치의 방향만 다를 뿐 역시 평행사선구도를 적극적으로 구사한 작품이다. '강화부궁전도'는 조선중기의 전통과 19세기의 새 궁궐도 양식의 중간에 위치하며 그 중간적 변화과정을 보여 준다는

27) 安輝濬 編著, 『國寶19: 繪畫1, 藝耕産業社, 1986, 84~85쪽 재인용

28) 安輝濬 編著, 『國寶20: 繪畫2, 藝耕産業社, 1986, 186~187쪽

29) 安輝濬,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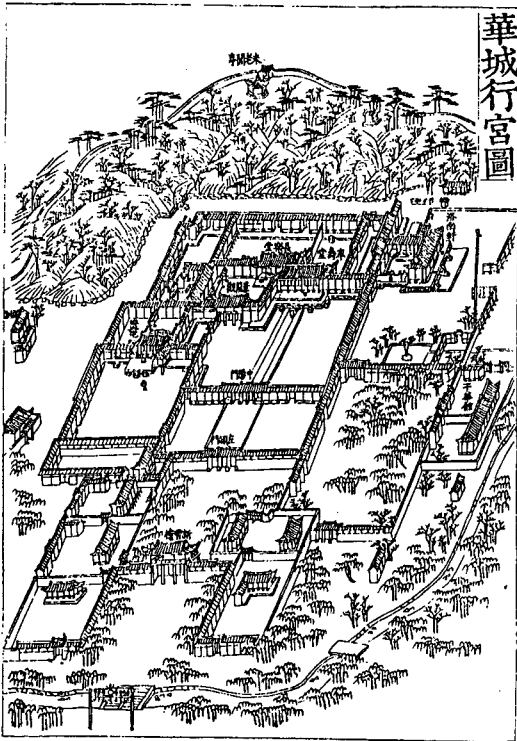


그림 13. 화성행궁전도(1796, 『園幸乙卯整理儀軌』)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³⁰⁾

18세기 후반에는 평행사선구도법이 완전히 정착하여 건물의 전체 배치도나 개별건물을 그리는 데 까지도 이용되었다. 또 그 이전에는 주로 기록화에서만 평행사선구도법이 사용되었으나 이때부터는 건축도에도 평행사선구도법이 나타난다.

(4) 19세기

19세기 투상도형 배치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東闕圖'이다. 동궐도는 순조26년(1826)~순조30년(1830)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³¹⁾

모든 건물을 정확하게 45° 투상도 형태로 그린 조감도 형식의 배치도로서 그동안의 투상도

30) 안휘준, 『윗책』, 52~53쪽

31) '東闕圖'에 관해서는 이창교, 『東闕圖』, 『文化財』第8號, 1974/ 주남철, 『東闕圖』, 『東闕圖』, 文化財管理局, 1991/ 안희준,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송인호외, 『우리나라의 옛 건축그림』, 『건축문화』, 196호, 97.9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4. 東闕圖(부분, 『東闕圖』재인용)

가 여러 가지 도법을 혼용해서 사용한 반면에 동궐도는 투상도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현이나 기법이 세련되고 정확하여 투상도형 배치도의 진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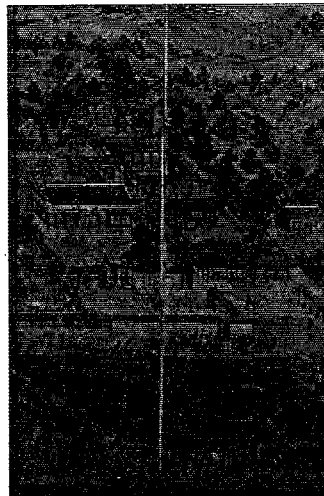


그림 15. 京畿監營圖(부분, 『옛궁 19세기의 평행사선구도법은 완전한 정착단계로 매우 세련되고 정확한 도법을 보여 주고 있다. 서양의 '아이소메트릭' 도법이지만 동궐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회랑이 꺾여서 도법상으로 주칸이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도 칸의 크기를 약간 늘려 정확히 칸 수를 셀 수 있게 한 점 등이 차이점이다. 정확한 도법을 구사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매우 융통성있는 도법을 구사하고 있다.

『헌종가례도』는 1844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투상의 방향은 반대지만 동궐도와 같이 평행사선

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행사도이기 때문에 행사장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물은 기둥 높이를 높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모습이 잘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16세기 '명종 조공중승불도'에서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물은 도법을 달리하여 입면부감도법을 사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19세기에는 한 화면에는 같은 도법으로 그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4-3 평면전개형 배치도

(1)18세기

평면전개식도법은 한국건축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시기도 늦다. 18세기초 평면전개형 배치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祭廳及石物造成時臚錄』(1718년)이라는 책의 '祭廳圖'이다. 이 제청도의 특징은 담장과 험문 등은 입면전개식도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 만큼은 평면도를 이용하여 배치도를 그린 평면전개식도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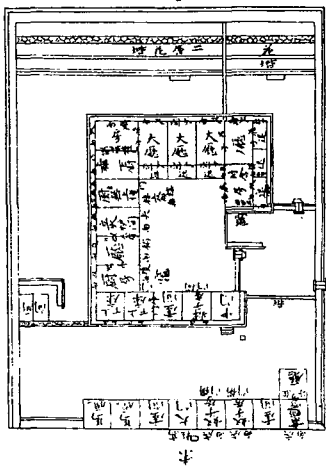


그림 16. 祭廳圖(1718, 『祭廳及石物造成時臚錄』)

특징적인 것인 실명 뿐만 아니라 건물 앞뒤에 창과 문의 종류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다. 도면의 묘법은 창이나 문의 표시없이 단순히 단선을 이용해 실의 외곽을 그렸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실명을 기록하는 방향이다. 남쪽을 기준으로 입면전개도법과 같이 북쪽과 동서로 넘어진 방향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 입면전개식도법과 같은 도법사상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표현법은 다르지만 같은 시기의 도면은 같은 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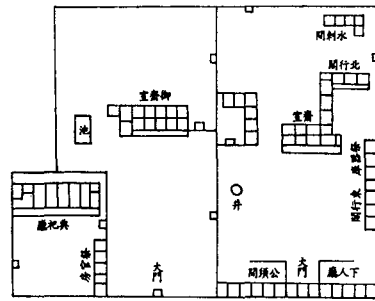


그림 17. 顯隆園圖(1794, 『顯隆園臚錄』)의 각종 齋室圖 등이 있다. 현릉원도는 실명을 쓰지 않았고 건물명만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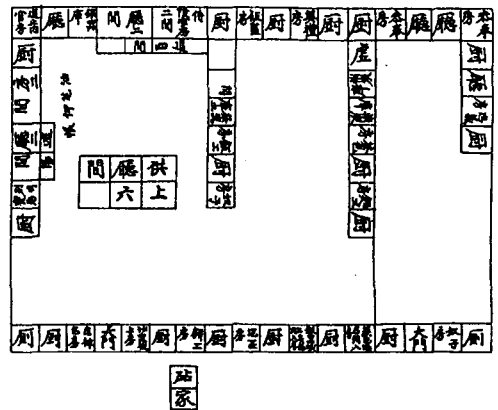


그림 18. 健陵假齋室圖(1800,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대부분 평면전개식도법의 배치도는 '山陵都監儀軌'류에서 보이는데 18세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800년 건릉을 시작으로 이후의 의례서에서는 매우 흡사한 배치도들이 의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의례의 형식도 이때부터 일정한 양식으로 정착되는 것을 보았을 때 영정조 조선성리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健陵山陵都監儀軌』(1800)의 재실도는 이후 산릉도감의례 재실도의 표준이 된다. 건릉의 평면전개식도법의 배치도는 '齋室間架圖', '假齋室間架圖', '內人假家間架圖' 등 세 종류가 있다. 재실간가도의 특징은 담장 등 외곽과 건물을 모두 단선으로 그렸으며, 방과 대청, 주방, 창고 등으로 구분하여 실명을 기록하였고 건물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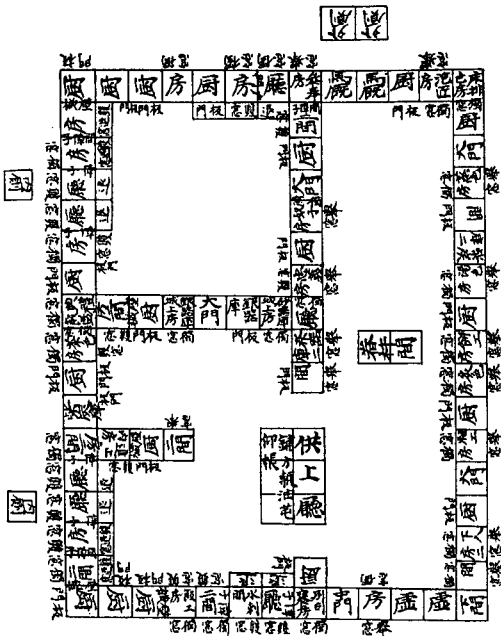


그림19.景陵假齋室圖(1849,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아울러 건물의 칸 수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글씨의 방향은 대문과 재실을 잇는 마당을 중심으로 한 중축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동서로 넘어지게 적었다. '제청도'와 같은 기법이다.

(2)19세기

19세기 초반의 평면전개식도법의 배치도는 純祖의 仁陵과 憲宗의 景陵 齋室圖에서 볼 수 있다. 인릉은 '齋室間架圖', '假齋室間架圖', '內人假家間架圖' 등 세 종류의 평면배치도를 볼 수 있고, 경릉은 '假齋室間架圖', '內人假家間架圖' 등 두 종류의 평면배치도를 볼 수 있다. 인릉의 재실도도 건릉의 재실도와 거의 유사하나 큰 차이점은 실명의 기록이 4방향, 즉 4방향전개식도법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건릉에서는 대문간채의 실명이 북쪽으로 넘어지도록 기록했는데 인릉에서는 남쪽으로 넘어지게 기록했다는 것이 다르다. 가재실이나 내인가가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경릉의 '가재실도'에서는 북쪽과 동서 3방향전개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에서도 실명의 방향이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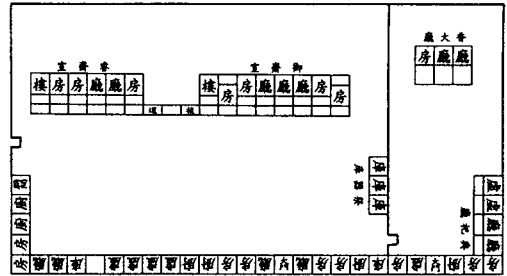


그림20. 裕康園齋室圖(1904, 『裕康園園所都監儀軌』)

19세기 후반의 예릉 '內人假家間架圖'에서는 도법은 전반기와 유사하나 특징은 실명의 기입 방향이 모두 안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4방향전개식도법은 모두 바깥으로 벌어지도록 하는 반면에 예릉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안쪽을 위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裕康園에서는 '齋室間架圖', '內齋室間架圖', '假齋室間架圖', '內人假家間架圖', '閣監廳間架圖' 등 네 종류의 평면도를 볼 수 있는데 모두 4방향전개식으로 실명을 기입하였다.

19세기 평면전개식배치도는 입면전개식배치도와 같이 수평이동시점에 의한 다핵적 공간개념을 반영한 도법을 보여준다.

5. 도법과 도법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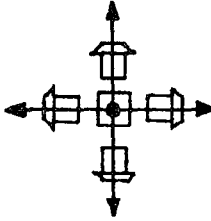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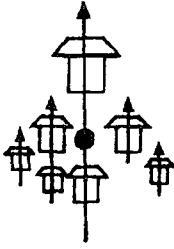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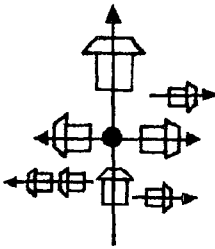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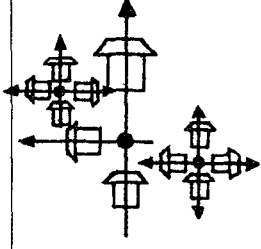
5-1 배치도법에 반영된 합리사상

(1)입면전개식도법의 합리사상

한국의 배치도법을 보면 중히 여겼던 몇가지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정면을 중히 여겼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칸의 칸 수를 정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하였고, 세 번째는 마당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서양식 배치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입면을 배치도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평면 보다는 입면을 중히 여겼다는 증거이다. 조선시대 도면에서 평면전개식도법의 배치도는 주로 19세기 산릉도감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바로 여기서 건축물을 이해하는 개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입면을 중히여긴 것은 주칸을 정확히 파악할

<표4>도법과 사상의 변화

	풍수지리적 도법사상	불교의 선화적도법사상		성리학적 도법사상
도법 개념도				
시기	고대	15~16세기	17~18세기	19세기 이후
근거	주왕성도	종묘전도 문소전도 월중도	인평대군방전도 경모궁도 문화묘도	사직서전도 현사궁도 준원전도
중심 축	건물중심 상하 수직축	마당중심 단일공간 수평중축	마당중심 단일공간 수직·수평축	마당중심 다핵 수직·수평축
도법	4방향 입면전개식	1방향 입면전개식	3방향 입면전개식	다핵 3방향 입면전개식

수 있고, 지붕의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또 실제건물의 분위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한옥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채를 분리하며 각각은 위계에 따른 조화와 질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반영할 수 있는 도법으로 입면전개식 도법이 훨씬 유리하다. 한옥은 보통 지붕의 형태(우진각, 팔작, 맞배)와 포의 종류에 따라서 건물의 위계가 다르다. 비록 평면이 작다 할 지라도 중요한 건물은 팔작지붕에 다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서양의 평면전개식 도법이라면 평면의 크기가 위계를 결정하므로 한옥의 위계질서를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붕의 형태나 공포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입면전개식 도법을 사용하면 평면의 크기에 관계없이 위계를 표현할 수 있다.

또 입면전개식 도법은 도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과 목구조의 도면기법으로 적합한 합리성이 있다. 목구조는 오랜 역사를 통한 일정한 법식이 있다. 칸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의 건축법을 보면 건물의 규모를 제한하는데 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주칸의 크기도 제한하지만 기본적인 골격

은 칸의 숫자를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집의 규모가 제한 되었다. 그렇다면 한옥에서 칸이라는 개념은 규모와 관련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칸의 숫자에 따라 건축비용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칸은 건축물을 이해하는 기본단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칸을 명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평면도에서도 정면과 측면 칸 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평면도로 그리면 위와 같은 위계 질서와 조화 그리고 건물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입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면전개식 도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신 입면전개식 도법에서는 측면 칸 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圖說'을 붙여 준다. 그러면 배치도에서 정면의 칸 수를 파악하고 도설에서 전체 칸 수를 견주어 보면 측면 칸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적식 구조와 기둥을 기준한 칸의 개념으로 지어진 목구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만약에 조적식과 같이 평면전개식 도법을 사용했다면 목구조에서는 입면도를 각각 또 그려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입면전개식 도법으로 그리고 간단히 도설만 붙여주면 해결되

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입면전개식 도법은 목구조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도법이었던 것이다.

(2)이동시점의 합리사상

한옥도법의 시점은 이동시점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단위건물이나 입면전개식 배치도, 평면전개식 배치도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단위 건물에서는 상하이동시점을 사용했고, 배치도에서는 수평이동시점을 사용했다. 입면도를 그리는데 입면투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요철이 있는 부분(전퇴와 같이)이나 기단 등은 높은 시점의 부감법을 사용하고, 처마 밑의 공포를 그릴 때는 양시의 낮은 시점을 이용한다. 즉 하나의 입면도에서 시점을 상하로 이동함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건물의 모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적은 도면으로 건물을 이해시키려는 효율화와 합리적인 사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시점법은 배치도를 그리는데도 이용되었다. 중심축개념에서 다핵공간 개념으로 변화해가는 18세기 중반부터는 입면전개식도법에서 중심축 뿐만아니라 부속건물들도 건물의 그룹별로 3방향전개식 도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그 공간(마당)에서 각 방향으로 바라다 본 시점으로 배치도를 그린 것이다. 이것은 마당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배치도에 사용하는 이동시점법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동서양 차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동시점법은 우리의 공간대 대한 생각을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었다.

5-2 도법의 변화에 따른 사상의 변화

입면전개식도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4방향 전개식은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개 중축선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서로 넘어트려 그렸다. 남쪽으로 넘어진 건물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중축선에 있는 대문은 남쪽으로 넘어트리지 않는다. 간혹 내부의 부속건물 중에서 남쪽으로 넘어트린 건물이 있기는 하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4방전도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 3방전도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입면전개식도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어 변화한다. 18세기 이전에는 북쪽으로만 넘어트린 1방향 전개식도법이고,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말까지는 중축을 중심으로 한 3방향 전개식도법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이후에는 중축이 사라졌으며 다핵공간을 중심으로 3방향 전도식 도법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시대사상의 반영이며 도법사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1)풍수지리적 도법사상

<三禮圖>속에 있는 <周王城圖>에서와 같이 고대의 건축도에서는 가운데 정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성문을 각 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린 사방전도식도법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사방전도식 도법과는 사상면에서 매우 다르다. 이 그림은 가운데 정전을 하나의 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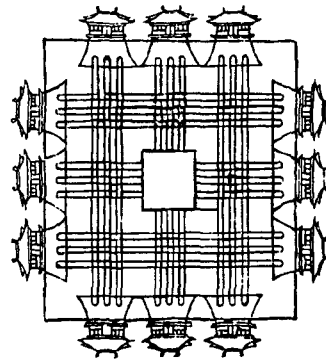


그림21. <三禮圖>중의 周王城圖

중심축으로 설정한 도법이다. 공간보다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설정한 도법인데 이를 우주론적 공간미학을 반영한 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 중심축 사상은 풍

수지리학이 발전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던 고대 사상이나 따로 명칭을 붙이기 어려워 후대에 정립된 풍수지리사상으로 용어를 붙이기로 한다.

불교의 우주관을 보더라도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증신주, 남쪽에 섬부주, 서쪽에 우화주, 북쪽에 구로주가 있다고 하여 우주의 중심축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³²⁾ 불교와 힌두교의 만다라가 모두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32) 동봉 읍길, 불교의 우주관, 관음출판사, 1993

만다라의 그림을 보면 '주왕성도'의 도법과 같음을 볼 수 있다.

불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 힌두교의 우주관도 중심축 사상이다. 힌두교에서는 우주의 중심을 메루산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사원의 경우에도 사원의 중심에 메루산을 상징하는 탑을 세운다. 탑은 역시 우주의 중심축으로 우주와 인간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³³⁾

결국 힌두교에서의 탑은 우주의 중심이면서 대극성의 합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리신앙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정신과 물질, 초월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의 결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인도사원에서는 5개의 탑으로 나타나며 밀교에서는 만다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힌두교의 중심사상도 우주의 중심축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힌두교와 불교의 우주관은 풍수지리에 이르러 오행사상과 결합하면서 건축의 환경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풍수지리학에서 명당이란 바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상징되는 종산과 주산과 안산과 조산 등등으로 겹겹히 쌓여 있는 중심을 말한다. 즉 우주의 중심축사상을 지리학과의 건축에 반영한 것이 풍수지리학이다.

“이들은 하늘이나 땅이 모두 어떤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적 질서란 이것을 중심으로 둘러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공간적 질서란 이런 우주적 질서의 인위적 재현이라고 보았으므로 건물은 둘러싸임의 공간의 한 복판에 중심축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둘러싸임의 커는 긴밀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때는 여러겹, 몇개의 커를 수반하는 중심에 우주의 축으로서 집이 자리잡는 것이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³⁴⁾

이러한 우주의 축축을 설정하고 건물을 배치하는 풍수지리적 사고가 건축도법에도 영향을 미쳐 사방전도식 도법이 탄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 사방전도식 도법의 사상은 우주론에 근거한 풍수지리사상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도법은 고대의 '주왕성도' 정도에서 나타나고 조선시대 배치도법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2) 불교의 선학적 도법사상

두 번째는 15~17세기의 중축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만 넘어트려 그린 1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다. 북으로만 넘어트린 것은 중심축을 하나로만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도법과의 차이점이라면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마당(즉 빈공간)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즉, 중축선에서 횡축선으로 바뀌었고 건물중심의 사고에서 공간중심으로 사고로 바뀐 것을 반영한 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의 선학적 공간미학(소우주의 이론과 다해공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철학은 앞서의 동양사상과는 달리 만물평등을 주장했다. 인간 각자는 모두 소우주로서 스스로 내부에 우주적질서를 간직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사는 살림집도 각기 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같이 다해 이론에 있어서의 공간 중심의 개념은 물리적인 陽의 건물 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의 공간인 빈 칸(空間)이 우주의 혼돈적 질서의 중심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禪思想과 밀접하게 연관지워지면서 발생하는 사상으로서 이때부터는 마당중심의 공간구성으로 민가의 간잡이가 변화해 가며 마당은 하나에서 여러개의 구성으로 발전하므로써 우주의 중심인 일점의 축 개념에서 건물의 축선개념으로 변천해 간다.”³⁵⁾

이러한 평등과 소우주의 개념이 도법에도 변화를 가져와 수직의 중축에서 수평의 횡축으로 바뀌고 건물중심에서 마당중심으로 도법이 변화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가운데 큰 마당을

33) 전재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1994, 183쪽

34) 김홍식, 한국민가의 미학적 특성과 21세기 한국적 간잡이 방법론, 『민족건축미학연구』 제2호, 1992, 52쪽

35) 김홍식, 위책, 52쪽

중심으로 수직 중심축을 설정하고 이 기준축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서로 건물을 넘어트려 그리는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변화를 가져오는데 마당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다핵공간으로 변화한다. 그러면서 도법도 중심축이 사라지고 건물의 그룹별로 따로 작은 축선을 설정하고 이 축선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서 3방향으로 넘어트려 그리는 다핵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초기의 1축선 입면전개식도법은 불교의 선학적 공간 미학사상을 반영한 도법이라면 후기에는 유교적 미학과 결합하므로써 공간에 있어 위계 질서를 부여하기에 까지 이른다 할 수 있다.

(3) 조선성리학적 도법사상

다핵공간의 발생과 이에따른 도법의 발생은 18세기 중반부터로 진경시대의 전성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진경문화가 이 시대에 이르러 이처럼 난만한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문화의 뿌리가 되는 조선성리학이라는 고유이념이 이시대에 이르러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다.³⁶⁾

주자의 성리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조선 성리학은 진경문화를 피워내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발전으로 이시기는 예술과 문화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이 건축도법에도 영향을 주어 다핵공간의 발생과 다핵공간을 중심으로 3방향 전개식도법으로 그리는 배치도법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마당은 단순한 빈터로서 빈새(공간)일 뿐이지만 집이 陽적인 3차원적 덩어리인 데 반해서 이것은 陰적인 3차원의 세계이다. 마당을 중심으로 둘러 앉히는 것도 비록 천장은 뚫려 있지만 마당의 집안의 내부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식은 집의 정면을 긴 네모꼴의 긴변으로 삼고 집안의 중심을 건물의 내부중심에서 마당 북판으로 옮기는데서 표출된다. 말

하자면 비록 마당은 외부공간이지만 집안의 내부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시 이것이 발달하여 이와 다른 기능을 지닌 뜰이라던가 혹은 안마당, 사랑마당, 셋마당, 중마당 등으로 분화되고 이것이 각종 대문이나 고살, 울래 등등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울동으로 승화해 갔다. 이러한 마당은 주역의 四相原理에 의해 철학적으로 뒷받침 된다.³⁷⁾

태극의 공간인 마당은 다시 양과 음으로 구분되어 외부에 대해 개방적인 앞마당과 폐쇄적인 뜰로 분화되며, 格을 갖춘 품질로서 집은 체와 용으로 나뉘어져서 몸채와 사랑채로 구분된다. 몸채인 안채는 고요한 것이며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반면에 사랑채는 항상 움직이는 공간으로서 외부로 개방되는 공공의 사회적 공간으로 된다. 이에따라 여기에 부수되는 마당,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마당의 기능이 체와 용으로 구분되고 이것이 다시 기능 분화를 낳는다. 따라서 사랑채, 안채, 문간채, 행랑채, 헛간채 등의 기능에 따른 집 이름과 공간으로서 바깥마당, 사랑바당, 앞마당, 뜰, 안뜰, 뒤뜰, 뒤꼍 등의 공간 분화를 가져왔다.³⁸⁾

이러한 성리학의 체용의 이론과 태극의 이론, 주객의 이론이 반영되어 태극으로서 하나의 공간이 음과 양으로 구분되 듯이 공간이 분화되고, 또 다시 사상으로 나뉘는 것처럼 다양한 공간이 창출된다. 이들은 상호 연계성과 위계질서를 가지고 배열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도법에도 반영돼 각각의 공간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같은 배치도에서도 건물의 단위 그룹별로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으로 그리는 새로운 도법이 18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전의 불교의 선학적 도법사상에서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북쪽과 동서로 넘어트려 그리는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이 유행했다면 성리학적 도법사상의 발달로 다핵공간이 발생하고 다양

37) 김홍식, 「빈새(空間)의 미학, 마당」, 『한국논단』, 1993.6

38) 김홍식, 「한국민가의 미학적 특성과 21세기 한국적 간접이 방법론」, 『민족건축미학연구』제2호, 1992, 53쪽

36) 최완수의 지음, 『진경시대』, 돌베개, 1998, 13쪽

한 공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축이 사라지고 각 다핵공간마다 축을 따로 설정하여 소축을 바탕으로 북쪽과 동서로 넘어 트리는 다핵 3방향 입면전개식도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6. 결론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하면 도법은 당시의 시대상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법은 건축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며 거꾸로 도법은 건축적 인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식 도법을 반성없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건축에 대한 인식까지도 서양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양식 도법의 합리적인 측면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옥을 그리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식도법은 다분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을 재고찰해보자는 것이다. 한옥은 목구조가 중심이어서 조적구조 중심인 서양식 도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식도법은 'T자'와 삼각자를 이용해 그리는데 한옥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직, 수평선은 거의 없다. 지붕선은 곡선이고 기둥에는 흠림이 있고, 기단 자체도 안정감을 위해 체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옥은 수직, 수평선을 연결하여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세에 따라 혹은 공간의 정밀한 미학적 이유로 건물을 수직·수평으로 배열하지 않고 약간씩 기울여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직·수평을 전제로한 서양식 도법은 한옥을 그려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한옥도면은 다분히 경제적, 시간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애써 공포 하나하나, 기와골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려 현장에 보내지만 도면수가 도면에서 참조 하는 것은 간살의 모양과 주칸 간격 및 개략적인 기둥 높이 만을 참조하고 공사중에 다시 도면을 보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도면

이 필요없다. 단선으로 그린 평면스케치와 기둥간격, 기둥 높이 등 만을 기록해 주면 되는 일이다.

한옥의 시공은 전통적으로 도편수의 몫이었다. 현장에서 도편수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일일이 다시 그린다. 평면도도 다시그려 기둥 및 보의 재원을 기록해 놓고 포의 상세도나 선자연의 상세도 등등은 현존도로 그려 부편수에게 넘겨 준다. 설계사무실의 도면이 이러한 도면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옥에 적합한 도법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도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이다.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온 한옥의 도면속에는 한옥을 옹바르고 효율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이 담겨 있으며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재 도편수 체제로 이루어지는 한옥공사에 가장 적합한 도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다.

세 번째는 설계도구의 개발이다. 'T자'와 삼각자를 이용하여 한옥을 그리다 보니 편하게 그리기 위해 수직·수평으로 배치하고 도면도 수직·수평으로 그려 한옥적 특징을 잃게 했다. 자유로운 한옥의 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설계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CAD도 기존 서양식 도법에 편리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한옥을 그릴 수 있는 CAD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아직 건축도면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상태이고 종합적인 고찰보다는 부분적인 연구에 불과하므로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현대 한옥의 이상을 담아낼 수 있는 도법의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景慕宮改建都監儀軌』, 규장각소장, 1776
- 2) 『景慕宮儀軌』, 규장각소장, 1783
- 3) 『國朝五禮儀』, 장서각소장, 1474
- 4) 『宮園儀』, 규장각소장, 18세기
- 5) 『東闕圖形』, 장서각소장
- 6) 『文禧廟營建聽騰錄』, 규장각소장, 1789
- 7) 『社稷署儀軌』, 규장각소장, 정조7년(1783)
- 8) 『垂恩廟營建聽騰儀軌』, 규장각소장, 1764
- 9) 『影印 華城城役儀軌』
- 10) 『永禧殿營建都監儀軌』, 장서각소장, 1900
- 11) 『懿昭廟營建聽騰儀軌』, 규장각소장, 1752
- 12) 『仁陵山陵都監儀軌』, 규장각소장, 현종즉위년(1834)
- 13)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규장각소장, 인조10년(1632)
- 14) 『壬辰倭亂 以後의 造營活動에 對한 研究』, 韓國文化財保存技術振興協會, 1992.11
- 15)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1800
- 16) 『祭廳及石物造成時騰錄』, 규장각소장, 1718
- 17) 『宗廟儀軌』, 규장각소장, 숙종32년(1706)
- 18) 『眞殿重建都監儀軌』, 장서각소장, 1901
- 19) 『哲仁王后睿陵山陵都監儀軌』, 1878
- 20)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1849
- 21) 『顯隆園騰錄』, 장서각소장, 건륭59년
- 22)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장서각소장, 1824
- 23) 김홍식, 『민족건축미학연구』제2호, 1992, 52쪽
- 24) 동봉 옮김, 『불교의 우주관』, 관음출판사, 1993
- 25)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東闕圖』, 1991
- 26) 박익수, 『朝鮮時代 營建儀軌의 建築圖 研究』, 전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7) 박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제9호, 1995
- 28) 濱島正士, 『設計圖が語る 古建築の世界』, 彰國社, 1992
- 29) 송인호외, 「우리나라의 옛 건축그림」, 『건축문화』 196호, 97.9
- 30) 安輝濬 編著, 『國寶19·20』繪畫1·2, 藝耕産業社, 1986
- 31) 安輝濬,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 32) 安輝濬外 編著, 『藏書閣所藏繪畫資料』,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33) 劉頌玉, 「朝鮮時代 宮中儀軌에 나타난 班次圖」, 『風俗畫』, 한국의 미19, 중앙일보사, 1985.9
- 34) 전재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1994
- 35) 鄭炳模,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的 研究」, 『文化財』제22호, 1989-12
- 36) 최완수의 지음, 『진경시대』, 돌베개, 1998.4

A Study on the Drawing Method and Thought of Architectural Site Plan in Chosun Dynasty

KIM, WANG JIK

(Proceeding Doctor Degree of Myungji University)

KIM, HONG SIK

(Professor, Myungji University)

ABSTRACT

There remain several architectural drawings which was made in Chosun dynasty,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current drawings. The site plan which is composed of slanted elevations doesn't exist in Western drawing method. This elevation development method is common in Korea, China, and Japan. These three nations also have a common point which the wooden structure are popular. So elevation development method is reasonable to represent the wooden structure. Because a drawing method reflects cultural character and thought, it is important to read the architectural perception at that time. In this viewpoint, I studied the characters of the drawing method in Chosun dynasty according to the periodical articulation of century, and how the drawing method reflects the thought at that time. And I suggested a new possibility of effective and reasonable drawing method for the wooden structure.